

창산 김정기의 유적조사와 한국고고학

이주헌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Corresponding Author : heun0530@korea.kr

국문초록

창산 김정기(昌山 金正基, 1930.3.3~2015.8.26)는 우리나라 문화재 발굴사에 있어서 큰 획을 그으신 분이다. 1959년 국립박물관 직원으로 문화재와 인연을 맺으신 이후, 1987년 문화재연구소를 퇴직할 때까지 약 30년에 가까운 세월동안 유적과 유물을 발굴하고 자료를 정리하며 2015년 영면하기 전까지 대학과 발굴 전문기관에서 우리 문화재의 가치와 의미를 밝히려고 노력하였다.

창산은 국내의 기념비적인 고고학 발굴조사를 모두 진두지휘하고 초창기 한국 고고학을 대표하는 학자로 국내외에 알려져 있으며, 한국 고고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남겼다. 그의 활동과 역할은 고고학사적으로 의미가 있으나 나름의 한계 또한 찾아볼 수 있다. 다양한 성격의 유적이 활발히 조사되어 한국 고고학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시기로 평가되고 있는 국립박물관의 덕수궁시기(1955~1972년)에 창산은 선사시대 패총유적이나 주거지와 같은 고고학 조사에 적극 참가하여 유적측량과 유구 실측을 비롯하여 사진촬영과 유물 제도 등을 맡아서 하였다. 그는 일본에서 익힌 발굴기술을 마음껏 발휘하였고, 전국을 무대로 종횡무진 이루어진 그의 고고학조사는 학사적으로도 높게 평가되고 있다. 특히, 창산의 견해 가운데 고고학적으로 주목되는 것은 고분에 있어 수릉의 가능성을 지적한 것과 청동기시대 문화의 이해에 “해미문화”라는 지역문화론을 처음으로 언급한 것은 탁견이었다.

1969년 문화재연구소가 설치됨에 따라 그 책임을 맡은 창산은 미약한 규모인 연구실의 운영과 총체적인 책임을 맡아 찬란한 우리문화를 지켜내고자 조사와 연구에 고심하였다. 그는 불국사 복원공사와 경주 천마총, 황남대총의 발굴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이후 황룡사지, 분황사, 미륵사지 등을 조사하며 삼국시대 불교문화와 가람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노력하였다. 당시 창산이 기획하여 진행한 대형 발굴조사는 한국 고고학의 기틀을 다짐과 동시에 관련분야의 연구를 활성화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한국 고고학의 계기적인 발전과정 상에서 볼 때, 다양한 발굴조사법의 시도와 체계화, 고고학 전문 인력의 양성과 발굴조사의 대중화, 조사기록의 정형화 및 자료공개 활성화 등은 이 시기 창산의 열정으로 이루어진 성과로 손꼽을 수 있다. 한편, 유적조사에 있어서 정확한 기록과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열정적으로 발굴에 심혈을 기울인 발굴왕 창산도 유적의 성격을 밝히고 유구를 해석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시대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였는데, 황남대총 주인공 논쟁의 불씨를 남겨둔 것은 그의 역할을 재음미해볼 때 매우 아쉬운 한부분이다.

주제어 창산 김정기, 해미문화론, 문화재연구소 설립, 발굴조사의 체계화, 조사기록 정형화

투고일자 2017. 09. 29 • 심사일자 2017. 10. 25 • 게재확정일자 2017. 11. 09



I. 머리말

창산 김정기(昌山 金正基, 1930.3.3~2015.8.26, 이하에서는 창산으로 칭함)는 한국 고고학과 고건축사 분야의 개척자이자 발굴왕(發掘王)이다. 그는 문화재 발굴과 보존에 한평생을 바쳤으며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초대 소장을 역임하였는데, 약 50여 년간에 걸쳐 국내의 다양한 유적을 다수 발굴하고, 관련 연구와 후학의 양성에 매진하여 한국 고고학과 고건축사 분야의 대부(代父)로 통했다. 창산은 일제강점기 이후 우리의 손으로 고고학 발굴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1950년대부터 국토개발계획으로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유적이 조사되던 1970년대 이후의 국가적인 대형 발굴조사를 현장에서 앞장서서 직접 이끌기도 하였다. 1959년 경주 감은사지 석탑 조사를 비롯하여 초창기 국립박물관의 고고학조사를 실질적으로 맡아 온 주인공이자, 1973년 경주 천마총 발굴조사 때는 박정희 전대통령과의 독대를 통해 개발과 문화유산의 보존을 논의할 정도로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와 신념이 강했고 이를 통치자가 인정했다는 일화는 학계의 전설로 알려져 있다.

1975년 문화재연구소를 발족시키고 창산은 초대 소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황남대총과 안압지, 황룡사지 등 경주지역 대부분의 유적을 비롯해 익산 미륵사지, 부여 부소산성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유적의 중장기 발굴조사 사업을 직접 진두지휘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미약한 고고학 조사방법과 고건축의 수리복원 작업의 기초를 마련하고 후학 양성에도 적극 이바지하여 발굴조사의 외연을 넓히고 우리 문화재의 가치와 사회적 의미를 정립시키는데 한평생을 바쳤다(한국고고학회 2008:147~240) 1987년 2월 국립문화재연구소를 명예퇴임한 후에도 고고학의 연구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가 작성한 70여 편의 논문과 10여 권의 발굴조사보고서는 학문에 대한 그의 열정을 그대로 전해주고 있다. 또한, 후학의 격려를 위해 창산 문화재학술상을 마련하는 등 문화재연구소에 대한 애정은 각별하였다. 그의 이러한 외길 인생은 그야말로 한국 고고

학이 걸어온 발자취이며, 문화유적 발굴사의 한부분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창산이 전국의 유적을 대상으로 활발하게 발굴조사를 추진하고 우리 문화의 정체성과 의미를 찾고자 고민하였던 국립박물관 시절과 국가적인 대형 발굴조사를 지휘하며 한국의 발굴왕으로서 자타가 공인하던 문화재연구소 재직시의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고고학사적인 측면에서 그의 공과(功過)를 정리하고 창산의 역할과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한다.

II. 국립박물관 시절 창산의 유적조사와 연구

1945년 광복직후, 고고학 및 문화재 조사연구 분야에 있어 체계적으로 유적을 발굴조사하고 출토된 자료의 분석과 그 의미를 연구할 수 있는 기관은 전무하였다. 그러나, 미 군정청으로부터 조선총독부박물관에 근무하던 아리미즈 코우이치(有光教一)의 귀국을 지원시키면서 박물관의 업무를 인계받아, 1946년 5월에 경주 호우총을 발굴 조사한 국립박물관의 존재는 고고학 연구기관으로서 그나마 유일한 것이었다. 따라서 광복이후 문화재연구소가 발족된 뒤 경주에서의 유적 조사가 본궤도에 오르는 1975년 이전까지 국립박물관의 발굴조사와 연구성과는 고고학계를 대표할 뿐 만 아니라 역사학계에서도 중요한 연구의 자료로서 활용되었다. 특히, 국립박물관의 덕수궁시기(1955~1972년)에는 선사시대 패총유적이거나 주거지는 물론이고 고려시대 가마터에 이르기까지 무려 50여 개소에 달하는 다양한 성격의 유적이 활발히 조사되어 한국 고고학과 미술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시기로 평가되고 있다. 국립박물관 김재원 관장의 요청으로 1959년 7월 일본에서 귀국하여 국립박물관의 일원이 된 창산은 김원룡, 윤무병과 함께 팀을 이루어 대부분의 고고학 조사에 참가하였으며, 발굴현장에서 유적측량과 유구 실측을 비롯하여 사진촬영과 유물의 제도 등을 모두

그가 맡아서 하였다. 또한, 발굴현장에서는 토층을 살피며 평면적인 변화양상을 추적함과 동시에 조사된 유구를 구조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고민하였다. 창산은 일본에서 익힌 발굴기술을 마음껏 발휘하였고, 이로 인해 국립박물관의 고고학 조사활동은 전국을 무대로 종횡무진할 수 있었다. 일본에서 유적조사법과 건축물의 수리기술을 배우고 몸소 체험한 창산은 당시 국내의 유적에 대한 호기심과 학문적 열의를 갖고 국립박물관의 유적조사 업무에 항상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는데, 그의 이러한 유적조사 활동은 학사적으로도 큰 의미를 가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창산은 경주 감은사지 서탑 조사(1959.10~1960.3)를 시작으로 영암 내동리 옹관묘 발굴조사(1960.10), 경주 황오리 4·5호분 조사(1961.1), 제천 황석리 등 전국의 지석묘 조사(1962.3~1967.4), 울릉도 천부동 고분조사(1963.6), 고령 고아동 벽화고분 조사(1963.11), 부여 금강사지 발굴조사(1964.3), 남해안 패총조사(1965.10~1968.11), 서산 해미유적 발굴조사(1968.5~1969.5) 등 10년 남짓한 짧은 국립박물관 근무시기에 무려 20여 건에 달하는 현장 조사

를 직접 담당하였다(표 1). 당시 절대적으로 부족한 국립박물관의 연구인력과 소액의 예산으로는 발굴조사가 현실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굴을 통해 역사를 실증하고 싶었고, 한국 미술사 속에서 건축사를 전공하는 학자가 되겠다는 일념이 있었기에 모든 것을 감내하며 기회가 닿는 대로 많은 유적 조사에 몰두하였다(동아일보사 2009:118~121). 당시에 진행된 여러 가지 발굴조사 가운데에서도 전국 각지에 분포하는 고인돌에 대한 중장기적인 발굴조사 사업(1962.3~1967.4)은 이 시기의 가장 큰 성과로 평가되는데, 이 조사는 대전 괴정동 출토 청동유물 일괄(1967년)과 서산 휴암리 주거지 발굴(1968.5~1969.5)등과 더불어 한국 청동기문화 연구에 새로운 장을 마련한 조사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경남 해안 일대에 산재한 패총유적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조사(1965.10~1968.11)도 당시까지 불분명했던 원삼국시대 문화상을 밝히고자 한 것이었으며, 3차에 걸쳐 실시된 부산 동삼동 패총의 발굴조사(1969.8~1971.4)는 우리나라 빗살무늬토기의 편년과 신석기시대 문화 양상을 규명하는 데

표 1. 국립박물관 시절 창산이 발굴 조사한 유적

| 조사년월 | 유적명 | 조사성과 | 관련 문헌 |
|-----------------------|--------------|--------------------------------|-----------|
| 1959.10.5~1960.3.1 | 경주 감은사지 | 건물지 확인, 서탑 조사 | 1 |
| 1960.10.12~1960.10.22 | 영암 내동리옹관묘 | 옹관묘 7기 확인 | 2 |
| 1961.1.11~1961.01.24 | 경주 황오리 4·5호분 | 적석목곽분 2기 조사 | 3 |
| 1962.3.9~1967.4.25 | 한국 지석묘조사 | 황석리, 천전리 삼거리 등 지석묘 및 주거지 조사 | 4 |
| 1963.2.27~1963.3.10 | 포항 기계면지석묘 | 무문토기 다수 수습 | 13 |
| 1963.6.1~1963.9.7 | 울릉도 고분 | 2회조사, 천부동, 현포동고분 4기, | 9, 10, 11 |
| 1963.11.3~1963.12.3 | 고령 고아동 고분 | 벽화고분 수습 조사 | 5, 12 |
| 1964.3.11~1966.3.27 | 부여 금강사지 | 2회 조사, 금당, 강당, 탑지, 승방지 등 가람 확인 | 6 |
| 1965.10.27~1965.11.9 | 양산 다방리패총 | 패총, 환호 등 학인 | 14, 15 |
| 1967.6.16~1968.11.20 | 남해안 패총유적 | 3회 조사, 동래 낙민동패총, 고성패총 등 조사 | 7 |
| 1968.5.30~1969.5.24 | 서산 휴암리 유적 | 3회 조사, 수혈주거지 8동 확인 | 8, 16 |
| 1969.8.29~1969.10.30 | 경주 불국사 | 불국사 경내조사 및 복원 공사 | 17 |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국립중앙박물관, 2009 : 286~292). 창산이 국립박물관에서 활약하던 1959년에서 60년대 말 무렵까지 국립박물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유적 발굴조사와 성과는 주로 선사시대의 문화양상을 규명하는데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하였고, 여기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고스란히 박물관 전시품으로 활용되어 박물관의 내실화 및 대외적인 정보 제공의 자료로서 큰 부분을 차지하였다. 또한, 현재까지도 한국의 신석기시대에서 초기철기 시대에 이르는 시대별 연구의 기준이 되는 고고학 기본자료로서 학계에서는 인정하고 있다.

01. 국립박물관, 1961, 『감은사지 발굴조사보고서』(특별조사보고 2책), 을유문화사
02. 국립박물관, 1963, 『영암 내동리옹관묘 발굴조사보고서』 『울릉도』, 을유문화사
03. 국립박물관, 1964, 『황오리4·5호분발굴조사 보고서』, 을유문화사, 서울
04. 국립박물관, 1967, 『한국지석묘연구』, 을유문화사, 서울
05. 서울대학교문리과대학교고고인류학과, 1967, 『고령벽화고분 조사보고』 『한국고고』2
06. 국립박물관, 1969, 『금강사지-부여군 은산면 금공리 백제 사지 발굴보고』, 을유문화사
07. 국립중앙박물관, 1998, 『동래 낙민동패총』
08. 국립중앙박물관, 1990, 『휴암리』
09. 국립박물관, 1963, 『울릉도』, 을유문화사
10. 국립중앙박물관, 2008, 『울릉도』
11. 중앙문화재연구원·독도박물관, 2009, 『울릉 남양리 고분』
12. 계명대학교박물관, 1984, 『고령 고아동 벽화고분 실측조사보고』
13. 김정기, 1963, 『영일군 출토 무문토기』 『고고미술』4-4
14. 유무병 외, 1993, 『양산 다방리패총 발굴조사 보고』 『정당동』, 국립중앙박물관
15. 金正基, 1981, 『韓國의遺跡を掘る』, 學生社
16. 김정기, 1974, 『청동기문화-주거지』 『한국사 1』
17. 문화재관리국, 1976, 『불국사 복원공사 보고서』

한편, 국립박물관에서 근무하던 시절(1959.7~1969.11) 창산은 주로 선사시대의 유적조사에 종사하였지만, 한국 고건축 연구에 뜻을 두고 고려와 조선의 건축에 대한 논고와 지방의 석탑을 소개하는 글을 자주 발표하였고, 지석묘와 선사시대 수혈주거지를 발굴하게 되면 그 구조와 성격에 대한 내용도 정리하여 간간히 한국 주거사와 관련된 글도 꾸준히 작성하였다. 당시 창산이 작성한 논문으로는 1960. 3, 『영산 법화암의 청석탑』 『고고미술』13; 1961. 2, 『경남 계성면 소재 지석묘』 『고고미술』22; 1961. 6, 『영국에서 본 도제모형탑 이례』 『미술자료』3; 1963. 4, 『영일군 기계면 출토 무문토기』 『고고미술』44; 1964, 『고려시대의 건축』 『한국예술총람개관』; 1964, 『이조시대의 건축』 『한국예술총람개관』; 1964. 6, 『달성 현풍의 석탑이례』 『고고미술』56-7; 1965. 3, 『이형와당 이례』 『고고미술』63-4; 1965, 『고려의 건축과 이조의 건축』 『문화재』1; 1965. 12, 『한국국보 건축물』 『한국예술총람자료』; 1968. 6, 『한국수혈주거지고(1)』 『고고학』1; 1969, 『고구려벽화고분에서 보는 목조건축』 『김재원박사회갑기념논총』 등이 있다.

III. 문화재연구소의 설립과 발굴조사의 정형화

1961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우리나라는 개발위주 정책이 시행되면서 고도성장의 길을 걷게 되었다. 전국은 공업화의 열기 속에서 오직 근대화화 고도성장의 가치에만 매달려 개발의 열기로 가득 찼다. 이 과정에서 우리 문화유산의 발굴이나 보존에 대한 체계적인 관심을 보일 여유가 생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다행하게도 196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문화'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가시화되기 시작하였고, 우리 문화를 지키고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기 위한 기본적인 작업이 바로 선조들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존하는 일이라는 의식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 같은 인식은 멀게는 임진왜란 때부터 가깝게는 일제강점기까지 우리문화의 훼손과 유출 정도가 심각하다는 학

계의 현실적인 각성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었다.

당시 문화재관리국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문화재 조사 관련 수요를 해결하기 위하여 문화재연구실 설치를 추진하였고, 1969년 11월 5일 대통령령 제4203호로 문화재관리국 내에 문화재연구실을 설치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조직의 운영을 책임질 인물을 모색한 끝에 당시 국립박물관 고고과에서 연구관으로 경주 불국사 복원공사에 관여하여 건물 관계 석부재들에 대한 수집과 점검 조사에 참여하고 있던 창산을 초대 실장으로 임명하였다. 1969년 12월 7일 경북공관리소 사무실 2층에 문화재연구실이 마련되어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되었으며, 당시 직원은 서무를 담당하는 부서원과 고고학을 전공하는 학예연구직 및 건축학 담당 부서원 등이었다. 새로 발족된 문화재연구실은 당초 고고학분야를 포함한 미술공예 부문, 무형문화재와 민속분야를 포함한 예능민속 분야의 조사연구가 계획되어 있었다. 보존과학연구실은 1969년 당시에는 2명의 인력으로 시작되었다가 이 분야의 연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창산의 적극적인 주장에 의해 1971년 말 이를 위한 직원을 별도로 채용하여 조직을 보강하게 되었다. 따라서 초창기 문화재연구실은 미술공예연구실, 예능민속연구실, 보존과학연구실 등 3개의 연구실과 43명의 인원 그리고 연간 5,000만원으로 출발하였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09:20~22). 개설 당시 문화재연구실의 규모는 극히 미약한 규모였으나, 그것은 찬란한 우리문화를 지켜내고자 한 작지만 큰 도전이었으며, 무모한 도전일지도 모르는 당시에 연구실의 운영과 총체적인 책임을 맡아 앞장서서 진두지휘하는 일은 모두 창산의 몫이었다.

조직이나 예산규모에서 알 수 있듯이 초창기 문화재연구실의 조사연구 활동은 그다지 활발하지 못하였다. 당시 국내 사정에 따라 주관기관은 달랐으나 실질적 조사 활동의 상당 부분은 경주개발사업의 일환인 불국사 복원공사와 경주 155호분(천마총)과 98호분(황남대총)의 발굴 등이 주요업무가 되었고, 이들 사업은 조직이 문화재연구소로 개편된 1975년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그밖에도 미술공예 담당

부분에서는 경주 남산의 불적조사와 동종조사 등을 비롯하여 팔당댐 수몰지구 발굴, 거창 둔마리벽화고분 발굴 등의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조사보고서들도 간행되었다. 문화재연구실 개설 당시 업무는 학예분야의 소규모 발굴조사, 문화재관리국 문화재과에서 시행하는 문화재 보수에 대한 일부 지도와 감독을 맡은 건축직 업무 등이 고작이었다. 하지만, 1970년대를 전후 한 석굴암 보수, 현충사와 도산서원 중수, 무령왕릉과 천마총 발굴조사 등 국가적 중대 사업들이 수행되기 시작하면서 연구실 활동이 본격화되었다. 이로써 반만년 소중한 역사, 그 역사만큼이나 소중한 우리의 값진 문화재가 비로소 그 숨결을 되찾기 시작한 것이다.

문화재연구실과 문화재연구소 시절 창산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한 발굴조사 유적은 <표 2>와 같다. 이들 유적은 한국 고고학사에 있어서 대표적인 유적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문화재연구실에서 실시한 최초의 발굴조사는 경주 망덕사지에 대한 발굴조사였다. 모두 2차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1차 조사(1969.11.11~11.18)는 동서목탑지와 회랑의 구조를 확인하기 위한 시굴조사이며 2차 조사(1970.3.27~4.27)는 금당과 동회랑지, 북회랑지에 대한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망덕사지 발굴조사는 이후 경주지역에서 이루어질 신라문화 연구를 위한 큰 발걸음의 시작을 알려주는 첫 조사로서 그 의미가 있으며, 흥륜사(1972.5~6)를 비롯하여, 고선사지(1975.4.7~6.5), 황룡사지(1976.5.10~1987.12.31)와 미륵사지(1980.7.7~1987.12.21) 등으로 연결되는 삼국시대 불교사원의 가람구조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자 한 창산의 탐구욕에 불을 붙인 도화선이 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 창산은 한국주거사 관련 논문뿐만 아니라, 삼국시대 가람의 구조 연구에 몰두하여 1978. 3, 「분황사지 가람배치 추고」 『고고미술』136·137; 1983, 「황룡사 가람변천에 관한 고찰」 『황룡사 유적발굴조사보고서』; 1984. 1 「백제가람의 특성 - 익산 미륵사지 유구를 중심으로 -」 『마한백제문화』27; 1984, 「사원건축」 『역사도시 경주』; 1984. 12, 「경주 사천왕사 가람」 『윤무병박사회갑기념논총』; 1986, 「가람배치의 비교」 『한국사론』16; 1988. 6, 「한국



고대가람의 실태와 고찰」『초우황수영박사고회기념미술사학논총』 등의 논문을 집중적으로 발표하게 되었다.

한편, 1971년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어 미추왕릉지구 고분군 정화 및 고분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98호분(황남대총)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부를 공개할 수 있도록 복원한다는 추진계획이 정부 주도하에 급진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즉각 제동을 걸며, 먼저 소형의 원형분에 대한 발굴경험을 축적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대형고분인 98호분(황남대총)의 발굴조사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자는 수정안을 창산이 제안하였다. 당시 문화재관리국은 창산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이고 이에 따라 98호분(황남대총)과 한 고분군내에 위치하며 동서로 마주보고 있는 황남동 155호분(천마총)에 대한 발굴조사를 먼저 실시하게 되었다. 155호분의 발굴조사는 창산을 단장으로 하고 조사원 4명과 보조원 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1973년 4월 6일 착수하여 7월에 유

물층에 도달하였다.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은 금관을 비롯하여 11,500여 점의 유물이 발견되었는데, 다수의 금, 은제 유물과 '천마도(天馬圖)'가 확인되어 학계는 물론이고 일반인의 관심을 크게 불러 일으켰다. 또한, 1973년 7월 6일부터 착수한 황남대총 남분과 북분의 발굴은 우리나라 고분 발굴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과학적 발굴 사례로 유명하다. 창산의 진두지휘 아래 추진된 천마총과 황남대총 발굴조사는 거대한 봉분을 갖춘 고총고분(高塚古墳)에 대한 치밀한 계획과 효율적인 조사 그리고 출토된 유물에 대한 과학적 보존처리가 유기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로써 국가직영 발굴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내 학술발굴조사 과정을 체계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립박물관 중심의 소규모적 단계 발굴과 긴급 유물 수습조사에 머물렀던 당시 문화재 조사의 틀을 크게 바꾸게 되었다. 이와 함께 관련 자료의 부족으로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던 한국 고고학의 학문적 수준과 연구영역을 급속도로 확장시킨 효과를 거둘 수 있었던

표 2. 문화재연구소 시절 창산이 발굴조사한 유적

| 조사년월 | 유적명 | 조사성과 | 관련문헌 |
|-----------------------|------------|------------------------------------|--------|
| 1969.11.11~1970.4.27 | 경주 망덕사지 | 2회조사, 건물지, 목탑지 확인 | 18, 19 |
| 1970.8.26~1970.8.31 | 강릉 하시동고분 | 삼국시대 고분 등 | 20 |
| 1970.5.10~1970.6.7 | 경주 안계리고분 | 삼국시대 고분 230기 조사 | 21 |
| 1972.12.9~1972.12.18 | 거창 둔마리고분 | 고려시대 벽화고분 등 | 22 |
| 1973.4.6~1973.10.20 | 경주 천마총 | 적석목곽분, 금관, 천마도, 토기 및 철기 등 다수 | 23 |
| 1973.7.6~1973.12.30 | 황남대총 북분 | 적석목곽분 1기, 금관, 환두대도, 마구 및 토기, 철기 등 | 24 |
| 1974.8.6~1975.10.8 | 황남대총 남분 | 적석목곽분 2기, 금관, 환두대도, 마구 및 토기, 철기 등 | 25 |
| 1975.3.24~1976.12.30 | 경주 안압지 | 원지, 건물지, 외당, 금동불상, 건축부재, 목선 등 다량 | 26 |
| 1975.3.11~1980.5.? | 진양 대평리유적 | 4회 조사, 지석묘, 주거지 등 수기 | 27, 28 |
| 1976.3.26~1976.4.16 | 서울 사당동요지 | 가마 1기, 토기편 다수 | 29 |
| 1976.05.10~1987.12.31 | 경주 황룡사지 | 건물지, 목탑지, 와전, 금동불상, 토기, 철기류 등 4만 점 | 30 |
| 1976.10.26~1978.05.15 | 신안 해저유물출토지 | 침몰선 및 고려청자 등 | 31 |
| 1980.7.7~1987.12.21 | 익산 미륵사지 | 건물지 등 다수 | 32 |
| 1980.11.17~1987.8.28 | 부소산 폐사지 | 문지, 목탑지, 금당지 등 확인 | 33 |
| 1982.7.28~1982.8.25 | 연천 전곡리 유적 | 구석기 등 다수 | 34 |
| 1986.5.12~1986.6.25 | 순흥 읍내리고분군 | 삼국시대 고분 5기 등 | 35 |

것은 주목되는 점이다.

또한, 창산은 문화재연구실을 문화재담당관으로 직제를 개정하고(1973. 3. 9), 이를 다시 국가의 대표적인 문화재 연구기관으로 승격시키는 일련의 작업을 추진하였다. 이로써 3실(미술공예연구실, 예능민속연구실, 보존과학연구실) 체제를 갖춘 문화재연구소가 마침내 발족 되었는데(1975. 4. 17), 이는 이후 정부 주도로 진행된 경주지역의 유적 조사사업을 순조롭게 이루는 전환점이 되었다. 특히 유기질로 구성된 각종 유물의 경우, 과학적 보존처리가 고고학 연구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점을 익히 인지하고 있던 창산은 출토유물의 과학적 보존연구는 고고학 조사와 함께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누차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보존과학연구실의 내실화작업이 발 빠르게 진행되었고, 많은 국내외 학자와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전문인력의 연수와 공동 연구를 여러 차례 추진하였다. 이로써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기술요원의 우선적 확보와 최신기기의 도입으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문화재연구소 자체적으로 출토유물의 대부분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처리 기술 능력도 또한 국제적인 수준에 도달하는데 노력을 더욱 기울이게 되었다.

18. 국립박물관, 1970, 『박물관 뉴스』1호
19.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5, 『경주 망덕사지 발굴조사보고서』
20. 김정기 외 1971, 『명주 하사동고분 조사보고』 『고고미술』10
21. 문화재관리국, 1981, 『안계리고분군 발굴조사보고서』
22. 문화재관리국, 1974, 『거창 둔마리벽화고분 및 회곽묘 발굴조사보고』
23. 문화재관리국, 1974, 『천마총 - 고분 발굴조사보고서』
24. 문화재관리국, 1985, 『황남대총 - 북분 발굴조사보고서』
25. 문화재관리국, 1994, 『황남대총 - 남분 발굴조사보고서』
26. 문화재관리국, 1978, 『안압지 발굴조사보고서』
27. 조유전, 1979, 『경남지방의 선사문화 연구 - 진양 대평리유적을 중심으로』 『고고학』5·6
28. 문화재연구소, 1994, 『진양 대평리유적 발굴조사보고』
29. 김원룡 외 1977, 『사당동 신라토기요지 조사약보』 『문화재』1
30. 문화재연구소, 1984, 『황룡사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31. 문화재관리국, 1981, 『신안해저유물』
32. 문화재연구소, 1989, 『미륵사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33. 문화재연구소, 1996, 『부소산성 발굴조사 보고서』
34. 문화재연구소, 1983, 『전곡리』
35. 문화재연구소, 1994, 『순흥 읍내리고분군 발굴조사보고서』

IV. 발굴왕으로서 창산의 역할과 한계

창산은 1959년 10월 감은사지 발굴조사를 시작으로 1987년 2월 문화재연구소를 명예퇴직할 때까지 약 30년에 가까운 세월동안 문화재 발굴현장의 최전선에서 유적과 유물을 조사하고 자료를 정리하며 연구에 몰두하였다. 60여 년 전 불모지와도 같았던 초창기 한국 고고학의 어려운 상황에서 청춘을 불태우며 활동한 다른 선학들과 함께, 한국 고고학을 대표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특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요한 유적의 발굴조사를 진두지휘하며 발굴왕으로 통한 창산의 역할은 고고학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으며 나름의 한계 또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국립박물관 시절 많은 유적을 조사하면서 발표한 창산의 견해 가운데에서 학사적으로 주목되는 것은 ① 고분에 있어 수릉(壽陵)의 가능성을 지적한 것 ②청동기시대 문화의 이해에 “해미문화(海美文化)”라는 지역문화론을 처음으로 언급한 것은 탁견으로 평가해볼 만하다. 고분의 수릉 문제는 1963년 11월 고령 고아동 벽화고분을 조사하면서 그가 직접 확인한 사실들을 근거로 하여 조심스럽게 제시한 견해이다. 창산은 고아동 벽화고분의 연도부를 조사하면서

“... 한편 연도의 동벽하부(棺臺 끝에서 남으로 1.4m 위치)에서는 두께 2.5cm의 원 회(灰) 칠면 표면에 홍, 흑색으로 당초문의 일부 같은 그림이 남아 있어 여기도 원래 벽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연도동벽부에서는 원래 회(灰)칠 위에 다시 황갈색 점토(벉집섞음)를 바르고 회칠을 한 제 1차 보수와 다시 그 위에 흑갈색점토를 섞은 제2차 보수가 층위를 이루며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 현실벽면에서의 관찰과 부합하고 있다. 이러한 2차에 걸친 벽면의 수리는 이 무덤이 완성된 뒤 적어도 두 번 개문(開門)되고 사람이 출입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관대(棺臺)는 두 개 뿐으로서 추가장은 1회 밖에 없었던 것으로 되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 곤란하다. 그래서 고인의 생존시에 이미 수릉으로서 이 무덤이 만들어졌다가 제1회 장례시에 벌써 벽면 탈락된 부분이 있어 그 부분에는 진흙으로 매우 고灰칠을 하였고, 다시 제2회 장례시에 또 탈락된 부분이 있어 그것을 흑갈색 흙으로 메운 것이라고 해석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고분이 제1회 피장인 매장시에 만들어진 것이지만 공사가 소홀해서 이미 제1회 장례시에 탈락된 부분이 생겨 다시 灰칠을 하고 벽화도 추채(追彩)하였고 그 후 제2회 장례시에 2차 보수를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김원룡·김정기 1967:3)

라고 해석하였다. 창산은 사후에 사용할 관재를 생전에 준비하는 사람이 당시에 있음은 사례로 들며, 고아동 벽화 고분은 한국에서 확인된 유일한 수릉일 가능성이 높다고 파악하였다(金正基 1981:97).

그러나 당시 창산이 제기한 삼국시대 고분의 수릉문제는 그다지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후, 1971년 무령왕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연도부 폐쇄전 가운데 장면에 매우 예리한 공구로 음각하여 좌중서로 “…士 壬辰年作”이라고 쓰여진 명문전 한 점이 발견되었다. 이 명문전은 무령왕이 죽은 계묘년(癸卯年, 523) 보다 10년 전인 임진년(壬辰年, 512)에 제작된 것이어서 이미 무령왕은 그 재위동안에 사후의 안택을 미리 마련할 준비를 한 것으로 파악한 논문(박용진 1973:69)이 발표되면서 고분의 수릉문제는 학계에서 정식으로 거론되기에 이르렀고, 향후에도 심도 있는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¹ 더욱이, 창산이 지적

한 고령 고아동벽화고분의 수릉 가능성은 가야의 각지에서 수장층의 묘제로 횡혈식석실이 적극 도입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암시해 주고 있다. 즉, 주인공의 사후에 무덤을 조성하는 체계(수혈식석곽묘)에서 생전에 자신의 무덤을 미리 마련하는 인식체계(횡혈식석실묘)로 대가야 지배계층의 상장의례와 장의사상이 변화된 것임을 보여주는 고고학 자료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다면, 수릉은 지배계층을 비롯한 당시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있어 장의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인식이 반영된 결과이므로, 이는 가야사회의 발전단계가 수혈식석곽묘 수준 보다 더욱 고도화된 사회체제, 즉 고대국가의 단계로 탈바꿈한 모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앞으로 가야사회에서 횡혈식석실의 출현과 고대국가 체제로의 관련성 문제는 우리 학계에서 한번쯤 심도있게 다루어 보아야 할 화두(話頭)라고 생각된다.

한편, 창산이 국립박물관 시절 선사유적의 발굴조사를 통하여 이해하고자 한 청동기시대 지역문화론인 “해미문화(海美文化)”는 주목해볼 만하다. 창산은 당시 청동기시대 또는 무문토기문화의 전개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인식 수준이 부족했던 한국 고고학계에 있어, 일정한 지역사회에서 확인되고 있는 선사시대 주거 형태를 근거로 주거양식의 변천과정과 사회구성원의 성격 및 역사의 계기적인 전개과정을 고고학적으로 이해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자 ‘해미문화’를 제시하였다. 당시 연구자들은 그 중요성을 그다지 인식하지 못한 것 같으나 이를 학사적으로 재조명해 본다면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할 만한 타견으로 평가할 수 있다. 1968년 5월 충남 서산군 해미읍 휴암리에 거주하는 한 노인의 신고를 받고 창산이 중심이 되어 3차례의 발굴조사를 실시한 휴암리유적은 평면 타원형의 기묘한 수혈식 유구와 다수의 무문토기편과 이형석기가 출토되어 당시 학계에서 인지하고 있던 무문토기유적에서

1 무령왕릉의 연구에 있어서 왕릉의 수릉(壽陵)문제는 인근에 위치한 송산리 6호분과의 선후관계 규명 및 피장자의 성격문제(이주헌 2016)와도 직접 관련된 문제이므로 향후 적극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확인되는 문화양상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었다. 휴암리 유적의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주거지의 양상은

“... 이때 발견된 수혈식 유구는 길이 약 5m, 너비 약 3m, 깊이 약 50cm 정도 되는 타원형의 것으로 타원형 수혈의 중심에는 길이 약 1m, 너비 40cm의 타원형 수혈이 얹혀져 있고 이 수혈의 양단에 직경 20cm 정도 되는 수직의 깊은 주혈이 설치되어 있었다. 수혈의 바닥에는 별도의 유구나 유물은 없으며, 단지 수혈의 어깨부근에 기둥구멍이 몇 곳에 있고 노지(爐址)나 불을 피웠다고 생각할 만한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이처럼, 종래까지의 지식으로는 노(爐)가 없는 수혈주거 등의 존재는 생각할 수 없으며, 이 수혈의 주위에 사람 머리 크기 정도의 하천석이 깔린 것이 있는 것으로도 원시종교와 관련된 어떤 수혈유구일 것이라 생각하였다. 출토유물도 상면 가까이에서 그다지 발견되지 않으며, 퇴적토층에서 석기와 무문토기편과 함께 단도마연토기편과 흑도편 등이 발견될 뿐이다.”(김정기 1981:227)

라고 표현하고 있어, 현재 학계에 널리 알려진 송국리형주거지를 가르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창산은 휴암리유적의 발굴조사에서는 무엇보다도 이 유적의 특수성에 주목하였다. 즉,

“... 해미주거지의 양상이 한강유역을 비롯한 대동강, 압록강 등의 큰 강 주변에서 발견되는 동시대 수혈주거지와 전혀 다르고... 아마도 전혀 계통이 다른 문화를 가진 집단의 집락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집단은 배를 타고 표류하여 이 부근의 해안에 정착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문화를 나는 ‘해미문화’ 라고 가칭 한다. 그리고 앞으로의 조사는 이러한 문화가 어느 범위내까지 분포하는 것인지 그 문화권의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金正基 1981:230)

라고 인식하였다. 이후, 노지가 없이 기묘하게 배치된 주혈을 가진 수혈주거지(일명 송국리형주거지)가 부여와 광주 등으로 남하하며 넓은 범위에 분포하고 있음을 알게 되면서, 그는

“... 당초 내가 생각하였던 해미문화권(海美文化圈)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범위의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서남부 일대에 분포한다고 할 정도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조영된 문화임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수혈주거지가 동쪽으로 넓게 나아갔는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 해미형 수혈은 진주 부근에는 분포하지 않을 가능성이 강하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나는 일련의 수혈과 이형석기를 수반하는 문화는 소위 마한 영역이라고 생각되는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만약 그러하다면, 마한을 구성한 사람들은 반도의 다른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과는 상당히 다른 문화를 가진 것은 아니었을까? 그러하다면 다음의 백제왕조에 의해 정복된 백제의 기저종족이 이 문화를 가진 사람들의 후예인 것은 아닐까...”(김정기 1981:232~233)

라고 스스로 반문하며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하여 청동기시대에서 초기철기시대에 이르는 유적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 고고학적 현상과도 이를 관련지어 보고자 하였다. 결국, 창산은 경주지방이나 북한과는 약간 다른 특수한 청동기문화의 중심지가 충남지역은 아닐까 하는 추측과 함께 청동기문화의 특수성과 해미계 수혈주거지를 가진 이형석기 문화는 일치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였다. 그리고 이 문화가 마한 영역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마한의 특성을 나타내는 한 요소가 된다(김정기 1979:9~10)라고 파악하며, 마한 문화의 정확한 규명을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고 장래의 조사와 연구를 기대하였다.

1968년 해미읍 휴암리에서 발견한 수혈주거지를 창산은 “해미주거지”(김정기 1979:5~10) 또는 “해미형 수



혈”(김정기 1981:226~234), 그리고 “해미형주거지”(김정기 1983:16~17)라고 이미 명명하였지만, 1975년 부여 송국리 유적에서 유사한 형태의 주거지가 발굴조사되고 연이어 송국리 유적에 대한 조사보고서가 국립박물관에서 발간(국립박물관 1979)되자, 이를 근거로 일본에서 “송국리형주거지”라는 명칭으로 분류(中間研志 1987:597)하며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학계에서는 “해미형주거지”라는 명칭 보다는 “송국리형주거지”로 널리 소개되며 오늘에 이르렀고 마침내 한국의 선사시대를 대표하는 하나의 문화유형으로서 중등학교의 교과서에까지 실리게 되었다. 더욱이 창산이 국립박물관을 떠난 이후, 박물관에서 심혈을 기울여 여러 차례 실시한 송국리 유적 발굴조사의 중요성과 대중성이 청동기문화 연구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선도하게 되면서 창산의 “해미문화론”은 한동안 주목받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일본 연구자가 제시한 “송국리형주거지”라는 명칭이 대체로 “원형주거지”라는 개념으로 고고학계에 정착되면서, 1990년대에 들어와 방형계와 원형계의 주거지 중앙에 타원형 구덩이와 중심기둥을 설치한 주거지만을 “송국리형 주거지”로 명명하게 되었고 우리나라 중서부 지역의 서산 휴암리에서 조사된 주거지(A형)가 시기적으로 가장 이르며 뒤를 이어 외주공식인 B형과 타원형 구덩이식인 C형이 뒤 따르며 남부지역으로 확산되었고, 이후 일본의 큐슈지역으로까지 전파되어 변화 발전하였다는 견해(이건무 1992)로 정리되었다. 또한, 이와 동시에 무문토기시대문화를 선송국리유형과 송국리유형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서, 전자는 휴암리유형과 검단리유형으로 후자는 송국리유형과 대야리유형으로 세분하고, 주거지를 평면형태와 관계없이 내주공식을 “휴암리형주거지”로 외주공식을 “검단리형주거지”로 분류하여 우리나라의 무문토기시대 서남지역과 동남지역을 대표하는 주거형으로 설정하고 각각 지역적 문화요소로서 양지역에서 문화적 확산이 진행된 것으로 보는 견해(안재호 1992:1~34)도 제시되었다. 결국 송국리식 원형주거지가 휴암리형주거지, 즉 창산이 언급한 “해미형주거지”에서 변화 발전된 것으로 확정하기에 이르렀다(안재호 1996; 김정기 1996:29~32).

어쨌든, 50여 년 전 창산이 피력하였던 ‘해미문화론’의 근간은 관련 고고학 자료가 증가한 오늘날까지도 그 기본 맥락은 유지되어 오고 있으며, 최근까지의 연구 성과에 비추어 볼 때 “해미형주거지” 문화는 금강유역을 중심으로 발생하여 각지로 파급되었고, 재지 집단과의 관계 속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어 갔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송만영 1995; 이종철 2015:9~13).

한편, 문화재연구소 시절 경주를 중심으로 창산이 진행한 고총고분 발굴조사와 황룡사지 발굴조사 등은 이후, 한국 고고학의 기틀을 다짐과 동시에 관련분야의 연구를 활성화시키는데 크게 이바지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한국 고고학의 계기적인 발전과정에서 볼 때, ③다양한 발굴조사법의 시도와 체계화 ④고고학 전문인력의 양성과 발굴조사의 대중화 ⑤조사기록의 정형화 및 자료 공개 활성화 등은 이 시기 창산의 열정으로 이뤄진 성과로 손꼽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③다양한 발굴조사법의 시도와 체계화는 이전부터 무의식적으로 유적의 발굴조사에 있어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왔던 좁고 긴 세장방형의 탐색갱을 중심으로 한 Trench 조사법 이외에 사방 8~10m에 이르는 대형의 Grid 발굴법을 처음으로 조사현장에 적용하여 발굴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한 것이다. 이는 단면상에 나타나는 토층의 변화양상에 중점을 두며 유구를 찾거나 성격을 판단하였던 이전의 탐색갱 중심에서 탈피하여, 유구의 평면적인 변화양상과 함께 토층상의 변화를 동시에 관찰하면서 출토유물을 층서적으로 수습하는 조사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1964년 부여 금강사지 발굴조사에서 주로 활용된 탐색갱 조사법과는 달리 1976년 황룡사지 발굴조사에서 적극 적용된 사방 8~10m의 Grid 발굴법은 넓은 공간에 분포한 지하의 건물지 관련 유구를 비교적 효과적으로 확인하는데 유효한 조사법으로 평가되어 이후 사찰의 가람구조나 건물지의 평면모습을 밝히는 발굴조사나 선사시대 집락의 배치와 대규모 주거지군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는 고고학 조사현장에서 활발하게 적용되었다. 또한, 천마총과 황남대총과 같은 대형고분의 발굴조사

에서는 사분법을 기본으로 하고 적절하게 탐색개를 응용하여 고분의 봉토 구조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봉분의 축조양상을 구조적으로 확인함과 동시에 무너져 내린 적석에 의해 심하게 흠트러진 유물의 효율적인 기록과 수습을 위해 10cm 단위로까지 방안을 설치하여 기록을 철저하게 하거나, '천마도장니'와 '금관'과 같이 수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유물은 본인이 직접 수습에 임하기도 하였다(동아일보사 2009:110~114). 이는 발굴조사 현장에서 20여년간 몸소 체득한 창산의 기술자적인 감각으로 이루어낸 것으로 '천마도장니'를 수습할 때에는 유물의 노출과 동시에 실측과 사진촬영 및 관련 기록을 신속하게 조치한 결과 거의 원형에 가깝게 수습할 수 있었고, 금관도 전혀 손상됨이 없이 흙더미 속에서 수거 하였다.

또한 문화재연구소라는 국가기관이 중심이 되어 상시적으로 발굴조사현장을 운영하게 됨으로써 ④고고학 전문인력의 양성과 발굴조사의 대중화를 가져오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된다. 문화유적에 대한 고고학 발굴조사가 그다지 흔하지 않았던 1970년대에는 경주에서 진행되고 있던 황남대총 발굴이나 황룡사지 발굴조사 현장은 이 분야를 공부해 보고자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최상의 학습장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더욱이 각별히 인재양성에 애정을 쏟은 창산은 전국에서 고고학 발굴조사 현장에 참가하기를 희망하는 대학생들을 수시로 받아들이고 연구 직원을 각각 고정 배치하며 엄하게 발굴조사 작업의 전과정을 기초부터 몸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하는 현장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당시 현장에 참가하여 엄격한 수습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대부분은 이후 전국 각지의 대학박물관이나 전공학과와 교수로 자리를 잡았으며 현재는 한국 고고학계를 대표하는 연구자가 되었다. 그들은 당시 경주의 발굴현장에서 습득한 다양한 경험과 발굴조사법을 후학들에게 가르치며 고고학의 대중화에 기여하여 왔으며 이들에 의해 오늘날까지 한국 고고학계의 근간이 유지되어 왔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또한, 창산은 1970년부터 일본과 영국 및 스웨덴 등의 문화재 조사 관련 전문기관들과 지

속적인 기술교류를 적극 실시하며, 문화재연구소 연구직원의 해외파견 훈련이나 유학을 적극 권장하고 주선하였는데(문화재연구소 1985:86~88), 이는 1990년 이후 문화재연구소의 지방조직 구축 및 문화권 학술조사 사업에 큰 힘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광복이후 열악한 한국 고고학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비교적 급성장할 수 있는 풍부한 자양분이 되었다.

⑤조사 기록의 정형화 및 자료공개 활성화는 창산이 한국고고학 초창기 시절에 기여한 역할 가운데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다. 국립박물관 시절 이루어진 대부분의 고고학 조사에 있어 유적 측량과 사진촬영 및 유구와 유물의 실측은 창산의 손을 빌려 이루어졌음은 이를 보여주는 것이다(국립박물관 1963). 창산은 사지나 궁궐지의 발굴조사에 있어서는 항시 먼저 지형을 살피고 측량기준선을 우선적으로 잡아 발굴조사를 진행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는 건물지 등의 발굴조사에서 지형에 따라 이루어진 유적의 기준선을 제대로 찾지 못하면 발굴할 때나 또는 발굴조사 후 확인된 유구를 실측할 때도 어려움이 있고, 사진을 찍을 때도 보기 좋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동아일보사 2009:100~102). 이는 1959년 감은사지 발굴조사에서 창산이 직접 지형을 살피고 동탑과 서탑 상층기단의 양모서리에서 양탑의 정확한 중심선을 잡아 설치한 측량기준선이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통일신라시대 건물지 유구의 중심선과 거의 일치한 것으로 확인되자, 사람들은 모두 창산의 발굴기술에 크게 감탄하였다고 한다.

창산은 모든 유적의 발굴조사에는 사진촬영과 유구와 유물의 실측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며, 사진촬영의 경우에는 필요한 촬영 대상물을 선명하게 촬영하여야 하고, 유구나 유물의 정확한 모습을 가장 잘 표현 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그것이 갖는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게 촬영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실측은 어떠한 경우에서나 정확히 되어야 하며 실측결과를 도화할 때 도면에 요구되는 필수적인 요건으로 방향 명시와 축척의 명시 등은 기계공학 또는 건축공학적인 도면과 같도록 하였다. 나아가, 유적



이나 유구 도면은 평면도와 단면도를 이용하여 적절하게 나타내며, 단면도의 경우에는 그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부위의 몇 곳에 단면을 그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김정기 1983:75~75). 따라서 그가 주도하여 발간한 발굴조사보고서(『경주 황오리4·5호분』, 『천마총』, 『황룡사1』, 『안압지』, 『황남대총-북분발굴조사보고서』 등)에는 비교적 많은 도면과 사진자료가 수록되어 있어 연구자의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창산은 또한, 조사된 모든 상황을 구체적으로 질서 있게 설명해 나가며 사진과 도면을 충분히 활용하여 그 성과를 직접 조사에 참가하거나 조사현장을 보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보고문을 작성하여야 발굴조사를 담당한 사람의 책임은 비로소 다하는 것으로 보았다. 특히, 보고에 있어서는 조사내용의 사실보고와 조사자의 판단이나 의견을 담은 고찰 보고를 완전히 분리하여 둘 것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조사자의 지식과 경험의 한계 문제로 인해 조사된 유적이 추정 판단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조사된 상황을 그대로 충실히 묘사하여 학술자료로 제공하여야 하며, 고찰 부분은 확실한 사항에 대해서만 최소한으로 줄이고 별항으로 처리하여 구성하는 것을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다(김정기 1983:77). 결국, 정확한 기록을 사실대로 작성한 발굴조사보고서를 신속하게 공개하여 학계에 공헌함으로써 발굴에 의해 필연적으로 손실되는 유적을 최대한 보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같은 그의 유적에 대한 발굴 철학은 문화재연구소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중심으로 기본적인 체제를 갖추게 되었으며, 당시 학계에서는 이를 기준 삼아 발굴보고서가 작성되기 시작하였고, 본문과 도면, 그리고 사진자료를 풍부하게 담은 사실보고 중심의 발굴보고서의 형태는 한 동안 주류를 이루었다.

한편, 유적조사에 있어서 정확한 기록과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열정적으로 발굴에 심혈을 기울인 발굴왕 창산도 유적의 성격을 밝히고 유구를 해석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시대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점이 있음을 실토하지 않을 수 없다. 즉 표형분(瓢形墳)으로 이루어진 황남대총

의 주인공에 대하여 ‘표형분=부부무덤’이라는 기존의 인식을 적극적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부인대(夫人帶)’라는 명문을 근거로 황남대총 북분 피장자를 남분에 묻힌 주인공의 부인 무덤으로 비정함(문화재관리국 1985:175~176)으로서 오늘날까지 한국 고고학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황남대총 주인공 논쟁의 불씨를 남겨둔 점(이주헌 2015a:4~8; 김성태 2016:74~101)은 창산의 역할을 재음미해 볼 때 매우 아쉬운 점이다.

광복이후 오랫동안 일제강점기의 고고학 그 자체를 평가해 보려는 한국 학계의 심각한 노력은 거의 없었으며, 미성숙했던 당시의 고고학계는 일제강점기 학문적 실천과 해석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고고학적 성과로 받아들였고, 오히려 그것을 계승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볼 수 있다. 자본주의 경제가 미약한 수준에 머물렀던 시기에 학계의 고고학적 실천은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었으며 과거 일본인에 의해 세워진 학설이나 가설이 뿌리 깊게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주장 위에서 때로는 헤매게 되었다. 이는 현실의 문제라기보다는 학문관의 문제로 탈식민지고고학에 대한 사유형식의 빈곤에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이성주 2013: 20~26).

따라서 창산의 황남대총에 대한 해석도 이와 같은 시대적 한계치 내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문리고분(夫婦塚)이 발굴된 지 1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표형분은 부부무덤’이라는 식민지시기의 인식과 그 그림자는 아직도 깊게 드리워져 있을지도 모른다(이주헌 2015b: 163). 그렇지만, 황남대총의 발굴을 마무리 한 지 40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그가 조사한 유적의 성격을 재해석하고 또한 그 가치가 바르게 평가되도록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바로 발굴왕 창산의 뜻을 진정으로 이어 나가고자 하는 우리 학계의 성숙한 모습은 아닐까 하고 조심스럽게 자문하여 본다.

V. 맺음말

창산 김정기는 우리나라 문화재 발굴사에 있어서 큰

획을 그은 분이다. 1959년 국립박물관의 조사원으로서 감은사지 발굴을 시작으로 국내에서 문화재와 인연을 맺은 이후, 1987년 문화재연구소를 명예퇴직할 때까지 약 30년에 가까운 세월동안 유적과 유물을 발굴하고 자료를 정리하며 우리 문화재의 가치와 의미를 밝히려고 노력하였으며, 2015년 8월 26일 이 세상을 영면하기 전까지 대학과 발굴 전문기관에서 후학을 지도하며 문화재 관련 논문과 발굴조사보고서의 작성에 혼신을 불태웠다. 그가 남긴 70여 편의 논고와 보고서에는 반세기가 넘는 한국 고고학과 건축사 분야의 성장과정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으며, 앞으로 우리 학계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화두와 진행방향도 어느 정도 가르쳐주고 있는 듯하다. 특히, 유적을 파괴하면서 자신의 영역을 키워 나가는 고고학이라는 학문에 대해 창산이 평생 동안 찾아다니며 던진 메시지는 우리에게 한층 더 큰 무게를 더해 주고 있을 지도 모른다.

창산은 국내의 기념비적인 고고학 발굴조사를 모두 진두지휘하고 한국 고고학을 대표하는 학자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정작 자신 스스로는 “고고학자라기보다는 유적 발굴기술자, 이것이 나의 정체다”(동아일보사 2009:121)라고 결론지으며, 학문에 대한 자신의 존재를 극구 낮추어 표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가 남긴 업적은 한국 고고학사에서 지워지지 않는 큰 흔적으로 기억될 것이고, 유적 발굴조사 현장에서 몸소 실천한 창산의 발굴 철학은 영원히 숨 쉬고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국립문화재연구소 40년사』
- 국립박물관, 1979, 『송국리 I』
- 국립박물관, 1963, 『울릉도』
- 국립중앙박물관, 2009, 『한국박물관 100년사』
- 김성태, 2016, 「황남대총 북분 피장자의 성별에 대한 새로운 접근」 『중앙고고연구』20
- 김원룡 · 김정기, 1967, 「고령벽화고분조사보고」 『한국고고』2, 서울대학교고고인류학과
- 김정기, 1996, 「청동기 및 초기철기시대의 수혈 주거」 『한국고고학보』34호
- 김정기, 1983, 「주거지 발굴에 있어서 문제점」 『한국사론』12
- 김정기, 1982, 「한민족의 주거」 『건축문화』10호
- 김정기, 1981, 『韓國の遺跡を掘る』, 學生社
- 김정기, 1979, 「마한 영역에서 발견된 주거지」 『마한 · 백제문화』3
- 동아일보사, 2009, 『박물관에 살다 - 한국 박물관 100년의 사람들 -』
- 문화재연구소, 1985, 『문화재연구소 10년사』
- 박용진, 1973, 「공주 출토 백제와 · 전에 대한 연구」 『백제문화』6집
- 송만영, 1995, 「중기 무문토기시대 문화의 편년과 성격」, 송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재호, 1996, 「무문토기시대 취락의 변천 - 주거지를 통한 중기의 설정 -」 『석오윤용진선생 정년퇴임기념논총』
- 안재호, 1992, 「송국리유형의 검토」 『영남고고학』11호
- 이건무, 1992, 「송국리형 주거분류시론」 『택와허선도선생정년퇴임기념 한국사논총』
- 이성주, 2013, 「일제강점기 고고학조사와 그 성격」 『일제강점기 영남지역에서의 고적조사』
- 이종철, 2015, 「송국리형문화의 취락체제와 발전」,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주현, 2016, 「송산리6호분 전용문양전과 피장자의 성격」 『부산고고학연구회 발표요지』 117호
- 이주현, 2015a, 「황남대총 북분 주인공 성격 재고」 『신라문화』45호
- 이주현, 2015b, 「제국주의 고고학과 정신유산적 가치의 재평가」 『문화재에 담긴 정신유산 가치 재조명』, 한국학중앙연구원 · 문화재청
- 한국고고학회, 2008, 『한국 고고학 60년』
- 中間研志, 1987, 「松菊里形住居-我國稻作農耕受用期における竪穴住居の研究」 『東アジアの考古と歴史』

Excavation of Kim Jeong-gi and Korean Archeology

Lee Ju-heun

Buyeo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Corresponding Author : heun0530@korea.kr

Abstract

Kim Jeong-gi (pen-name: Changsan, Mar. 31, 1930 - Aug. 26, 2015) made a major breakthrough in the history of cultural property excavation in Korea: In 1959, he began to develop an interest in cultural heritage after starting work as an employee of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For about thirty years until he retired from the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in 1987, he devoted his life to the excavation of our country's historical relics and artifacts and compiled countless data about them. He continued striving to identify the unique value and meaning of our cultural heritage in universities and excavation organizations until he passed away in 2015.

Changsan spearheaded all of Korea's monumental archeological excavations and research. He is widely known at home and abroad as a scholar of Korean archeology, particularly in the early years of its existence as an academic discipline. As such, he has had a considerable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of Korean archeology.

Although his multiple activities and roles are meaningful in terms of the country's archaeological history, there are limits to his contributions nevertheless.

The Deoksugung Palace period (1955-1972), when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was situated in Deoksugung Palace, is considered to be a time of great significance for Korean archeology, as relics with diverse characteristics were researched during this period. Changsan actively participated in archeological surveys of prehistoric shell mounds and dwellings, conducted surveys of historical relics, measured many historical sites, and took charge of photographing and drawing such relics.

He put to good use all the excavation techniques that he had learned in Japan, while his countrywide archaeological surveys are highly regarded in terms of academic history as well.

What particularly sets his perspectives apart in archaeological terms is the fact that he raised the possibility of underwater tombs in ancient times, and also coined the term "Haemi Culture" as part of a theory of local



culture aimed at furthering understanding of Bronze Age cultures in Korea. His input was simply breathtaking.

In 1969, the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NRICH) was founded and Changsan was appointed as its head. Despite the many difficulties he faced in running the institute with limited financial and human resources, he gave everything he had to research and field studies of the brilliant cultural heritages that Korea has preserved for so long.

Changsan succeeded in restoring Bulguksa Temple, and followed this up with the successful excavation of the Cheonmachong Tomb and the Hwangnamdaechong Tomb in Gyeongju. He then explored the Hwangnyongsa Temple site, Bunhwangsa Temple, and the Mireuksa Temple site in order to systematically evaluate the Buddhist culture and structures of the Three Kingdoms Period.

We can safely say that the large excavation projects that he organized and carried out at that time not only laid the foundations for Korean archeology but also made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studies in related fields.

Above all, in terms of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Korean archeology, the achievements he generated with his exceptional passion during the period are almost too numerous to mention, but they include his systematization of various excavation methods, cultivation of archaeologists, popularization of archeological excavations, formalization of survey records, and promotion of data disclosure.

On the other hand, although this “Excavation King” devoted himself to excavations, kept precise records, and paid keen attention to every detail, he faile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his era in the process of defining the nature of cultural remains and interpreting historical sites and structures. Despite his many roles in Korean archeology, the fact that he left behind a controversy over the identity of the occupant of the Hwangnamdaechong Tomb remains a sore spot in his otherwise perfect reputation.

Keywords Changsan Kim Jeong-gi, Theory of Haemi Cultur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Systemization of excavation methods, Formalization of survey records

Received 2017. 09. 29 • **Revised** 2017. 10. 25 • **Accepted** 2017. 11. 09